



## 제38회 정기총회 소식

협회는 2005년 1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38회 정기총회를 개최, 2004년도 결산과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고, 새로운 회장단과

먼저 권영찬 총무이사의 개회 선언과 함께 국민의례, 성원보고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역시 문화관광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시다가 최근 행정자치위원회로 옮기셨다.

문화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만큼 역대 어느 회장님 못지않게 우리 협회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리라 기대가 된다.

지난 2004년 9월 4일 개최된 제12회 전국속기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이희규 회장은 2005년 새해 인사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속기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실질적인 속기인은 아니지만 영원히 속기인의 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속기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인사말씀을 마치셨다.

이후 홍순관 이사장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2004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선임의 건 등을 부의안건으로 다루었다. 회원들의 별다른 의견 없이 2004년도 결산과 2005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다음으로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회장단과 임원진이 구성되었는데 고흥길 의원(한나라당·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출신)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하였다. 협회 회원들에게도 친숙한 고흥길 의원은 2선(16·17대) 의원으로 중앙일보 편집국장파 논설위원을 역임하셨고, 16대 국회에서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셨으며,

신임 부회장으로 홍순관 회원을 선임하였으며 또 김기영 회원, 최황수 회원, 고태중 회원은 연임하기로 하였다. 또한 김창진 신임이사장 및 18인의 이사를 선임하였으며 감사에는 최성주 회원, 유순태 회원을 선임함으로써 새 임원진 구성을 완료하였다.

현재 국회 속기1과 과장님으로 계시는 김창진 신임 이사장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칭기즈칸 스토리 중 “각자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모두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회원들에게 다 같이 하나의 꿈을 만들어 보자는 인사말씀으로 회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기타사항으로서 회원들끼리 얼굴도 알고 연락도 하면서 친교도 쌓을 수 있도록 주소록 발간 시 얼굴사진을 함께 실었으면 좋겠다는 유순태 감사의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앞으로는 회원들 간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더라도 서로를 보다 가까이 느끼고 좀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회원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던 총회였다.

\*\*\*\*\*

## 신 임 회 장 인 사



### ▷약력

16대 국회문화관광위원회 간사(전)  
17대 국회행정자치위원회(현)  
중앙일보편집국장, 논설위원  
한나라당총재특보  
국회언론발전연구회 회장(현)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회장(현)

속기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고흥길입니다.

한 가족이 된 회원 여러분들께 지면으로나마 먼저 인사를 나누게 되어 반갑습니다.

뉴밀레니엄 시대의 시작과 함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첫발을 들여놓은 이후,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자주 그리고 가까이에서 관심 있게 보아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장이 되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쓰임새는 달랐지만 저 역시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 적기도 하고, 기록을 했던 기자 시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제가 대한속기협회 8대 회장이 된 이 큰 인연의 단초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록은 종이 등을 사용한 문서형태로서 물리적 실체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전자 매체 형태로 생산된 전자기록

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회의록도 국회의 회의 할 것 없이 전자회의록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를 하는 방법 혹은 도구도 다양해졌습니다. 게다가 영상미디어를 통한 기록도 등장하고 있고 디지털화된 기록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또한 기록의 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그 변화의 속도에 적응해야 한다고 해도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중매체의 발달이 책의 몰락을 가져오지 못했듯이 여러분들이 만든 회의록이 먼 후대에게는 이 시대를 반영하고 증명하는 귀중한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록문화의 역사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문화유산 중에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 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이 시대의 제대로 된 사초를 만드는 일,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교과서에서나 찾아 볼 수 있을 법한 史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에게 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록을 생산과 관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회의록이라는 전문 기록물을 생산해 내는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정부 부문에서는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국가기록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록의 관리 못지않게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기록의 생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 史官

다. 그러나 회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할 때 그 소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고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매우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힘도 모치면 커진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하나가 된다면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는 말을 새삼 되새기며, 저를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미래를 위해 함께 뛰겠다는 말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회 장 고흥길

## 제198차 이사회 소식

제198차 이사회는 2005년 1월 19일 개최되어 보고사항으로는 ▲주소록 발간 완료(총회 시 배부 예정) ▲2004년도 결산 감사(1. 19)가 있었다.

이어서 ▲제38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일시 및 장소 결정) ▲2004년도 결산서에 관한 건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한 건 등을 심의하였다.

## 제199차 이사회 소식

제199차 이사회는 2005년 2월 4일

10시 30분에 제199차 이사회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이사회는 회장단과 집행부가 새로 구성된 후 열린 첫 번째 이사회로서 먼저 신임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던 후 총무이사로부터 ▲ 제38회 정기총회 부의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부의안건으로 ▲ 총회에서 위임받은 각 부의 부장단 임명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 2005년도 사업계획(안)을 상정하여 예산이 확정·배정되면 다시 상세히 심의하기로 하는 한편 ▲ 법인정기보고 및 임원 등기는 총무부에 일임하였다

기타 사항으로서 지방의회속기사협의회회장의 이사회 참여 필요성과 회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자는 결의가 있었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는 젊어진 만큼 힘차고 열의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줘 앞으로 협회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겠다.

신임 이사장님께서서는 고흥길 회장님을 중심으로 속기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한층 힘을 모으자는 말로 첫 이사회를 마무리하였다.



새로 짜여진 홍보팀입니다.

♣홍보이사 - 조영기      ♣홍보부장 - 김영중

♣편집기자 - 유점임·박윤혜·김지숙·이경진

www.steno.or.kr ☎02-788-2377

회비납부는 (농협) 036-01-112844 (이봉선 재정부장)

# 임원 및 기구표

